

# “세계적 생태도시로 도약하는 원년”

올해 새해설계 노관규 순천시장은

## 문화·우주·바이오 3대 경제축...지역경제 활성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문화산업 메카 도약

“문화·우주·방산, 바이오산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태·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순천을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새해를 맞아 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문화산업, 우주·방산산업, 바이오산업을 3대 경제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원도심과 국가정원 습지센터에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해 문화산업의 메카로 도약한다. 세계적인 기업 케나즈와 프랑스 합작기업 오노코리아가 이미 법인 이전을 마쳐, 올해 봄 본격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예



순천시장은 “문화·우주·방산산업을 선도하기 위

해 오는 3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조립장을 완공하고, 내년에는 누리호 5호기 제작을 목표로 우주산업 시대를 열 계획이다. 방산 및 로봇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도 함께 육성하며, 고층·사천·대전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시 간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바이오산업은 승주읍 일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그린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AI 기반 자율재배 스마트팜을 통해 의약품 및 미래식품 원료 농작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오는 5월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을 신청해 남해안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순천시는 3대 경제축과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정책도 병행

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1천200억원 규모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확대한다.  
불 꺼진 원도심에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콘텐츠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복지 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출생수당을 신설해 1세부터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제공한다.  
전남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과 AI염 불린스를 확대하고, 필수의료지원재단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완성한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도

늘려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향들 일원에는 호텔, 예술의 전당, 국제규격 수영장 등 생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순천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받아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해 국제적인 생태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순천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도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노관규 시장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상상력으로 시민과 함께 세계에 자랑할 순천을 만들겠다”며 “2025년은 순천이 경제와 복지, 생태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순천=정기기자

## 여수·광양항 항만건설, 사업 추진 ‘탄력’

### 여수해수청, 예산 2천9억 확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5일 “올해 여수·광양항에 항만건설 예산 2천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건설 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광양항 1천450억원, 여수·여천항 200억원, 거문도항 230억원 등으로 주로 항만시

설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5년 중점 추진 항만개발사업은 2027년 신규 투기장(호안 7.5km)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인 ‘광양항 광역 준설도 투기장 조성사업’ 및 노후된 항만시설(부두 700m) 개선을 위한 ‘낙포부두 개축공사’다.  
또한 거문도항 제2삼호교 및 방

파제 시설 확충, 여수구항 중화동 수제선 정비, 여천항 모도수도 항로 직선화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준하 여수해수청 항만건설과장은 “여수·광양항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항만시설 확충과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담양군 대치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선정

### 물들정비지원센터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 기대

담양군 대전면 대치지구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아파트 수준의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5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대전면 대치지구가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빌라 등 저층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장과 안전·편의시설 등 생활 기반을 공급해 아파트 수준의 주택 공급·정주 환경을 제공하고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자금융자,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인 대전면 대치리 일부 지역(약 11만473㎡)으로 국토 2호선인 도시 외곽으로 확장된 후 대전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유동 인구가 급감하고, 대도시 인구 유출 및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쇠퇴가 가속화된 지역이다.  
담양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20

억원(국비 100억원)을 투입해 주택 정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보행 안전·생활안전 등 기반 시설 강화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물들정비지원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 기자



담양군이 지난해 10월 뉴빌리지 공모사업 대상지인 대치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사업 취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 지원 확대

### 대상자 39→45세 확대·다자녀 면적 제한 폐지

광양시는 5일 “민선 8기 청년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양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원 이내, 전세

(임대)의 경우 6천1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3%의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원 총액(6억원), 지원 대상자 수(1천200명) 등의 객관적인 수치와 10년의 최대 지원 기간은 전남을 넘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주거 안정 정책 등에 힘입어 광양시 인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인

구가 증가한 광양시는 외지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하고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한을 전격적으로 폐지한다.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청년일자리과(061-797-1994·5) 또는 광양청년꿈터(061-818-2020)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양홍철 기자

## 이호범 화순 부군수 취임...본격 업무 돌입

화순군은 5일 “전남도와 화순군의 2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이호범(사진) 신임 화순군 부군수가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1988년생인 이 부군수는 1988년 나주가 군이던 시절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95년 전남도로 전입했다. 2015년 사무관 승진 후 관광마케팅 팀장, 한전공대설립

지원단 지원담당관 등을 역임했고, 2021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번 전남도 상반기 인사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화순군 부군수로 발령을 받았다. 이 부군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후부터 무안공항 현장에서 화순 유가족들을 지원했고, 화순 도작 직

후부터 합동분향소 등을 점검하며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범 부군수는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수를 잘 보좌하고 부서장, 팀장, 일반 직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필 기자



장성군이 한국철도공단 주관 ‘철도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조성시범사업’에 전남 최초로 선정돼 백양사역 인근에 지역아동센터를 조성한다. (장성군 제공)

## 장성 북부권 보육공백 해소 ‘속도’

### 백양사역 인근 지역아동센터 건립...전액 한국철도공단 지원

장성군이 북부권 보육공백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공단 주관 ‘철도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조성시범사업’에 전남 최초로 선정됐다.  
‘철도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조성시범사업’은 철도역 인근 부지를 활용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장성군이 선정된 곳은 백양사역 인근(북이면사거리 587-185)으로 건축 면적 200㎡ 규모다. 건축비 13억원 전액을 한국철도공단이 지원한다.  
장성군은 국가철도공단 업무협약 체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선 2023년 전남 최초로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 장성군은 지역아동센터 건립으로 ‘북부권 거점형 돌봄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올해 준공하는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과 2028년 개조 완료 예정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북부권 주민들의 보육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며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태기 기자

## 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10억 달성

### 전년비 3배 ↑ ...소아과 모금액 목표 초과

곡성군은 5일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1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액인 4억원 대비 200%를 초과 달성했고, 3억3천여 만원을 모금했던 2023년 대비 기부액은 315%, 기부건수(9천388건)는 503%가 증가했다.  
곡성군은 올 초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기부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부효용감을 높인 것이 기부건수와 기부액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대표 지정기부 사업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는 모금 목표액인 2억5천만원 보다 121% 초과 달성한 3억4천여 만원을 모금하는데 성공했다.  
이 밖에도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 빨래방 프로젝트’,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원 프로젝트’ 등 모두 1억원을 훌쩍 넘는 모금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연말정산 시즌을 활용한 답례품 이벤트를 운영하고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모금 창구를 다양화한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군은 12월 한정으로 한돈, 한우, 쌀, 김치 등 주요 품목을 증량하는

이벤트를 실시해 2024년 한해 답례품 구매액의 55% 가량을 누적 판매했다.  
또한 위기브, 신한·국민은행 등 민간 플랫폼을 도입한 결과 총 모금액의 23% 가량을 추가 모금할 수 있었다.  
/곡성=김영필 기자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통해 지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옥과통합보건진료소에서 아이를 진찰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